

# 외국인 비구니 승가대 첫 졸업

## 加 출신 자은 스님 청암사 승가대서 영문 흠피 개설 등 한국불교 알리기 공로로 상 수여



2월 2일 열린 김천 청암사승가대학 졸업식 모습.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의 길에 졸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2월 2일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 승가대학(학장 지행)의 졸업식은 학인에게는 물론 청암사승가대학에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지난해 10월 청암사 불사를 회향하면서 열악한 환경 탓에 졸업식을 하지 못했던 1기부터 20기까지의 졸업식을 합동으로 봉행한 후 올해 처음으로 기수별 졸업식을 가지는 날이었다. 이날 졸업식은 청암사승가대학 21기 졸업생 33명

이 단독으로 갖는 최초의 졸업식이 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특별한 이 더해졌다. 외국인 비구니 스님으로는 최초로 승가대학을 졸업하는 캐나다 출신의 자은 스님이 졸업생 중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인 수행자들이 선방이나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정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승가대학을 졸업하는 비구니 스님은 자은 스님이 처음이다. 자은 스님은 이날 재학기간 중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 한국불교와 청암사승가대학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청암사 교육과 자원관에서 열린 졸업식은 작지사 주지 상용 스님, 주지 상덕 스님, 학장 지행 스님, 증산면

이도와 면장을 비롯해 졸업생 학인의 은사 스님, 신도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학장 지행 스님은 훈화를 통해 "졸업은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며 학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수행의 현장에서 본분을 잃지 않고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행하는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을 가진 학인들은 "처음 청암사에 입학해 힘든 점도 없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치열하게 견뎌내며 밤을 지새워왔다"며 "청암에서 더 정진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가든 청암인의 자긍심과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청암사승가대학에는 현재 120명의 학인이 정진 중이다.

## 실상사 창건시 가람배치 확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김용민은 1999~2005년 전북 남원 산내면 실상사 경내 30개 건물지를 발굴 조사한 성과를 최종 정리한 <실상사 II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건 당시 금당지는 중문지와 일직선상에 배치됐으며 강당지와 연결되는 동쪽 익랑지는 중심선상에서 동쪽으로 20m 치우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쪽 익랑지는 발굴되지 않아, 창건 당시 강당지 서쪽 구릉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람을 구성한 배치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여수령 기자

## 강원도 문화재 지킴이 발족

강원도 문화재 보호 지킴이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월 9일 원주 구룡사 삼검당에서 발대식과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문화재 보호가 우려된다"며 "문화재 보호 지킴이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연대 고문은 오현(신홍사 회주)·정년(월정사 주지)·백운(석양사 주지)·월도(삼운사 주지) 스님이, 공동상임대표는 원경상·임창규·임중호·김미자씨가 맡았다.

남동우 기자

## 이슈

"개약"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조계종 '종무원법'이 총무원장과 중앙총회의장의 거부권 행사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71회 임시중앙총회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스님도 최소한의 경과기간없이 종단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했으며, 파렴치한 범죄행위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거름장치마저 제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장직 스님(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 "개약" 종무원법 법적 효력 없다

### 총무원장·중앙총회의장 미공포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외가 들어와 중앙총회의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미공포로 인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종헌 제43조에 따르면, 중앙총회에서 의결된 종법안은 총무원으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공포해야 한다. 총무원장이 그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중앙총회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총무원장, 중앙총회의장 모두 이 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장직 스님은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종무원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5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나뉘먹기식"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조계종 직능직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원, 강원, 울진 등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선원, 강원, 울진 등 10개 분야 직능직 중앙총회의원 20명(해당 분야 당 2명씩)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직능대표 선출위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헌종법개정특위(위원장 장직) 제4차 회의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전국선원수좌회는 "수좌(선원) 대표 중앙총회의원은 전국 수좌 2000명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 최

## "수좌 대표 중앙총회의원은 최소 5명"

### "강원 대표는 승가대학 10년 이상 재직"

소 5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선방 15년 이상 성만하고 최근 3년 이상 정진중인 자로서, 전국선원수좌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국강원교직자회는 "직능대표(강원) 자격은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승가대학(강원)에서 10년 이상 교역직(교수 이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전국강원교직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축출원은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직능분야별로 1인씩 선출한 10인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으로 구성"하고 "울진·선원 등 각 교육기관을 대표할 만한 기구, 즉 교육기관 대표단체의 추천(복수추천)을 통해서 임후보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앙총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Interview 자은 스님

### "번역 사업·해외 포교활동 하고 싶어요"

"외국인이라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은 국적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겪는 일일 겁니다."

외국인 비구니 스님으로서 처음으로 승가대학을 졸업하는 캐나다 출신 자은 스님(사진)은 졸업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언어, 문화적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중생활을 통해 나의 잘못을 잘 볼 수 있었고, 수행자로서 받아

들어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스님은 세계적으로 수행 잘하기로 유명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뒤 99년 마곡사 은적암의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2000년 사미니체를 받았으며 이번에 청암사승가대학을 졸업하게 됐다.

"앞으로 선방에서 보다 깊은 수행을 해보고 싶다"는 자은 스님은

"기회가 주어지면 종단의 번역 사업을 돕고 싶고, 캐나다에 불교를 알리는 포교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객원기자

## "자비로운 설 맞으세요"

### 불교계 복지관들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 다채

2월 18일 정해년 설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이웃과 함께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원장 지원)는 14일부터 3일간 센터 서예동아리 회원들이 무료 지방 찜주머니 행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집에서 직접 차를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공동차례를 지낸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2월 14일 지역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쌀을 전달하고, 연꽃마을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센터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2월 15~16일 설맞이 민속잔치를 연다. 서울 분동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부터 16일까지 '사랑의 설날 보내기-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설날' 행사를 연다.

부산 영호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400여 세대를 초청해 '설맞이 사랑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14일에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초청하고 15일에는 장애우를 초청해 민속놀이 마당과 다과회를 마련한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 모은 쌀을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도 15일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 및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여수령 기자

## 문화재 수리·매장문화재 보호 법 재정

### 문화재청 2007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문화재수리법과 매장문화재보호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의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7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불교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 및 과학적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재수리법' 제정과,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매장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문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을 신설하고 조사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하고, 객관적 발굴조사 기준도 마련한다. 금년 6월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과 '조선왕조의궤'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운영도 본격화된다.

한편 경주와 부여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 사업으로 대형 발굴 복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제도에는 민속문화재분과와 경관심의회를 신설하고,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와 예능으로 나누어 심의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제3기> 창조적 리더십의 불교지도자!

#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 Buddhist Executive Management Course

"사원과 종단, 사업과 언론·정치·법조계 등, 각계 지도자 여러분, 창의적 정신과 도전적 리더십으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리더로 거듭나십시오."

모집안내	
모집인원	• 40명 내외
지원자격	• 각 불교종단의 지도자급 이상 스님 • 불교신도로서(공·사기업체 회장·사장 임원, 국회의원,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각 군의 장성,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7년 2월 1일 ~ 2월 말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30

<제3기> 아름다운 프로!

# 장례비즈니스 아카데미

## FBA (Funeral Business Academy)

"장례비즈니스의 전문성이 더욱 절실한 시대, 죽음 관련학과가 세계 주요대학의 인기학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프로의 날개를 다십시오!"

### 교육과정

- ▶ 교육기간: 1년
- ▶ 수업시간: 매주 월·화요일 18:30~21:20
- ▶ 교과과정: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문 분야의 특강과 다양한 실습, 견학, 연수 프로그램 포함)

### 입학안내

- ▶ 모집인원: 25명 내외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07년 2월 말까지  
- 전 형 일: 개별통보
- ▶ 입학비: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FBA 수료증 수여(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해외 관련업체 연수(자비), 장례비즈니스 관련 다양한 인적교류의 네트워킹지원 및 확대기회제공)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http://gsbs.dongguk.edu  
TEL. 02)2260-3098 / FAX. 02)2260-8627